

아동·청소년의 성폭력 피해 특성과 대처방안에 관한 연구

-전남지역 상담사례를 중심으로-

박옥임, 채연아*

순천대학교 소비자·가족아동학과, 전남여성긴급전화 「1366」

I. 서 론

우리나라에서 그동안 사회적으로 드러나지 않았던 성폭력 문제가 최근에 이르러 빈번하게 노출되고 있으며, 이제는 더 이상 방치할 수 없을 정도로 인권의 사각지대에 놓여 있다. 성폭력이라는 단어를 신문이나 TV를 통해서 거의 매일 접할 수 있는 것이 요즘 우리 사회의 현실이다. 언론에 보도되는 아동·청소년성폭력은 실제의 극히 일부라고 할 수 있으며, 그 가운데서 자기보호능력이 미흡한 아동·청소년성폭력은 그 빈도뿐만 아니라 피해의 후유증은 매우 심각한 사회적 문제라 할 수 있다.

여성부(2003)의 상담집계를 보면 2001년의 전국 성폭력상담소 89개소의 상담 실적은 총 39,627건으로 2000년 총 28,670건(62개소)인 것에 비하면 1년 간 10,957건(38%)나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피해 유형을 살펴보면 강간이 12,384건(31.3%), 성추행이 10,599건(26.7%), 기타 성희롱이나 음란전화 등이다. 피해자 연령은 20세 이상 성인 24,289건(61.3%)을 제외하고 약 40%가량이 19세 미만의 유아, 아동, 청소년인 것으로 나타나 아동·청소년성폭력에 대한 적극적인 대처방안이 강구되어야 함을 알 수 있다. 그러나 이들 피해자 가운데 가해자를 고소, 고발한 비율은 전체의 6%(2,641건)에 불과하여 미흡한 수준에 그치고 있다.

한국성폭력상담소(2003)에 의하면 2002년 3,534건(4,877회)이 접수되었으며, 이중 83.8%인 2,961건이 성폭력 피해상담으로 나타났다. 2002년 성폭력 피해자를 연령별로 살펴보면 성인피해가 1,643건(55.7%), 청소년 570건(19.3%), 어린이 461건(15.6%), 유아 211(7.1%), 미상(2.3%)순으로 나타났으며, 성폭력 가해자의 경우는 성인 2,252(76.1%), 청소년 311(10.5%), 어린이 102(3.4%), 유아 24건(8%)으로 나타났다

자기의사 표현능력이 취약한 아동과 이성에 대한 호기심과 성에 대한 관심이 지대한 청소년기는 신체적으로나 정신적으로 급성장하는 결정적 시기(the critical period)로서 인간발달 단계 중 가장 중요한 시기이다. 따라서 이 시기는 아직 자아의 확립이나 자신의 인생관이 정립되어 있지 못하기 때문에 아동·청소년기의 성폭력 경험은 당사자에게 감당할 수 없는 큰 혼란과 갈등을 겪게 되며, 그 후유증 또한 매우 심각하다고 하겠다. 또한 성폭력의 경험에 따른 충격을 견디지 못한 아동·청소년 피해자 중에서 본드

흡입, 가출, 성매매로 유입되는 것은 물론이거니와 심지어 자살에까지 이르고 있다.

성폭력 피해는 피해자들의 침묵과 주변사람들의 은폐하려는 특성상 피해자들이 자신의 피해에 대해서 전문상담기관에 문의하거나 법적, 의료적 조치나 사회복지 서비스를 지원 받는 경우가 극히 적으며, 피해발생상황에 따라 적절한 위기 개입이 되지 않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또한 점차 증대하는 아동·청소년 성폭력 피해자를 위한 지역사회서비스나 대처방안을 정확히 파악하는 일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따라서 아동·청소년의 성폭력 피해상담사례를 근거로 학교, 지역의 청소년 관련기관, 성폭력상담기관, 사회복지기관, 가정 등이 연계하여 사회복지적인 차원에서 성폭력 문제의 해결을 위한 대처방안을 마련하기 위한 통합적인 노력이 절실히 요구됨에도 불구하고, 아동·청소년성폭력 피해상담사례를 객관적인 데이터를 이용한 조사연구는 미약한 수준에 그치고 있다.

이 연구에서는 전남지역에서는 최초로 1997년에 개소한 성폭력피해자전문상담기관인 전남성폭력상담소에 접수된 19세 이하 아동·청소년 성폭력피해 상담사례의 체크리스트를 객관적 데이터로 하여 우리사회에서 일어나고 있는 아동·청소년 성폭력 피해에 대한 사회·경제적 변수, 성폭력 피해특성, 성폭력피해 유형에 따른 대처방안을 모색하고자 한다.

이 연구의 제한점은 이 연구의 대상이 성폭력 피해라는 특수한 상황에서 자신의 피해 상황이 노출되는 것을 극히 꺼려하는 피해자만을 대상으로 하였기 때문에 이 연구결과를 다른 연령계층에 까지 확대 적용하는데 한계가 있으며, 연구대상자는 전남성폭력상담소라는 한 기관의 데이터를 중심으로 분석하였기 때문에 전국적인 통계로 일반화하는데 그 범주가 취약한 점을 들 수 있다.

II. 연구방법

1. 연구문제

【연구문제 1】 아동·청소년의 성폭력 피해 특성은 어떤가?

<1-1> 아동·청소년의 성폭력 피해 특성의 수준은 어떤가?

<1-2> 연구대상자의 사회경제적 변수에 따라서 성폭력 피해 특성은 차이가 있는가?

【연구문제 2】 아동·청소년성폭력 피해 대처방안은 어떠한가?

<2-1> 아동·청소년성폭력 피해 대처방안의 수준은 어떠한가?

<2-2> 아동·청소년성폭력 피해 대처방안은 제 변수(연구대상자의 사회경제적 변수, 성폭력 피해 특성)에 따라 차이가 있는가?

2. 연구방법

연구자가 소속한 현장인 전남성폭력상담소에서 1998년 7월부터 2003년 9월까지 5년 3개월간의 상담접수 된 241명의 아동·청소년 성폭력 피해상담사례를 연구대상자의 사회경제적 변수와 성폭력피해 특성과 공식적 대처방법에 따라 3개영역으로 체크리스트를 작성하여 그 항목에 따라 사회경제적 변수영역 7개 문항, 성폭력 피해 특성영역 9개 문항 그리고 대처방안에 관한 영역 7개 문항으로 분류하여 확보된 아동·청소년성폭력 피해사례를 객관적인 데이터 처리를 통해 결과 분석을 하였다.

3. 통계 분석

통계 분석 방법으로는 연구대상자의 사회·경제적 변수, 성폭력 피해 특성, 성폭력 피해 대처방안 등을 보기 위해 빈도분석, 백분율, 평균, 표준편차 등을 분석하였다. 연구대상자의 사회경제적 변수와 성폭력 피해 특성의 차이를 보고, 연구대상자의 사회경제적 변수와 성폭력 피해 특성에 따른 대처방안의 차이를 보기 위해서 χ^2 검정을 하였다. 자료의 통계처리는 spss window 10.0 프로그램을 이용하여 이루어졌다.

III. 연구결과

첫째, 아동·청소년성폭력 피해 당시 연령에 따른 피해자의 특성을 보면 성폭력 유형, 피해 장소, 피해 당시 피해자의 태도, 피해 빈도, 피해 지속 요인, 성폭력 피해 사실이 드러난 동기, 최초의 내담자에서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가 나타났다.

성폭력 피해 유형을 보면 강간이 가장 높게 나타났고, 강간미수, 성추행 순으로 나타났다. 그리고 피해 당시 피해자의 태도에서 48.1%가 발생하였고, 피해빈도를 보면 1회가 55.3%, 2회 이상이 44.7%로 아동·청소년성폭력 피해의 경우 피해가 지속될 가능성이 높게 나타났다. 이러한 피해가 지속되는 것을 막기 위해서는 피해자 스스로 도움을 요청하고 피해자 부모가 인식하여 공식적인 대처방안인 지역사회 시스템을 더 적극적으로 이용해야 할 것이다.

피해가 지속되는 요인을 보면 가해자 측 요인이 55.2%이고 보호자 측 요인이 44.8%로 성폭력 피해가 지속되는 것을 막기 위해서는 가해자와 격리뿐만 아니라 보호자가 자녀의 성폭력 피해 사실을 인지하는 것이 중요한 요인으로 판단된다. 피해 사실이 드러난 동기를 보면 피해 사실 발견이 42.7%이고 피해자가 도움 요청이 56.8%로 나타나서 피해자 스스로 도움 요청이 높게 나타나서 아동성교육에서는 부모교육이 필요함을 보여준다. 부모의 관심으로 아동이 언제든지 피해 사실을 말할 수 있도록 부모의 관심이 요청되며, 무엇보다 아동이 성폭력 피해에 대한 인식을 할 수 있도록 성폭력 예방교육이 필요하다.

둘째, 아동·청소년 성폭력 피해자의 피해 당시 연령에 따른 대처방안을 보면 의료적 조치, 상담과정에서 취해진 조치, 부모의 대처방안에서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가 나타났다. 13세 이하 아동의 경우 의료적 조치를 하지 않음이 56.6%로 나타났고, 14-19세 청소년의 경우 산부인과, 정신과 진료가 69.1%로 나타나서 청소년의 경우 성폭력 피해 정도가 심각한 피해를 당하고 청소년기의 특성상 임신에 대한 두려움 등이 더 높기 때문으로 사료된다. 부모의 대처방안을 보면 13세 이하 아동의 경우 피해자 지원이 82.6%로 높게 나타났고, 14-19세 청소년의 경우 피해자 방치가 59.7%로 나타나서 13세 이하 아동의 경우 피해 현장에서 피해 사실이 발견되는 경우가 높기 때문에 부모가 피해 사실을 알고 바로 대처할 수 있는 반면에 청소년의 경우 피해 사실을 숨기는 것이 더 높게 나타나서 부모가 피해 사실을 인식하지 못하기 때문에 피해자 방치가 높은 것으로 사료된다.

셋째, 피해자와 가해자의 관계에 따른 대처방안을 보면 고소 가능한 요인, 고소를 하지 않은 이유, 개인적 대처방안에서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가 나타났다. 피해자와 가해자의 관계에서 경찰서에 고소 가능한 요인을 보면 아는 사람의 경우 증거 확보가 55.4%로 높게 나타났고, 모르는 사람의 경우에는 피해자 본인의 의지가 73.8%로 나타났다. 고소를 하지 않은 이유는 심리 사회적 요인으로 나타났다. 개인적 대처방안을 보면 아는 사람인 경우 피해 사실을 숨기려고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넷째, 성폭력 피해 유형에 따른 성폭력 피해 대처방안을 보면 고소 가능한 요인, 고소를 하지 않은 이유, 의료적 조치, 상담과정에서 취해진 조치, 개인적 대처방안, 부모의 대처방안에서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가 나타났다.

성폭력 피해 유형에 따른 고소 가능한 요인을 보면 강간은 피해자 본인의 의지가 51.4%, 강간미수는 증거확보가 72.4%, 성추행은 가족, 주변인 지원자 확보가 75.0%로 나타났다. 고소를 하지 않은 이유는 심리 사회적 요인이 76.0%이고 의료적 조치를 한 경우가 59.3%로 나타났다. 상담과정에서 의료적 법적 조치를 지원한 경우를 보면 강간과 강간 미수에서는 높게 나타났고 성추행의 경우 상담으로 종료된 경우가 더 많았다. 개인적 대처방안을 보면 강간, 강간미수는 피해 사실을 숨김이 높게 나타났으나 성추행의 경우 도움요청이 더 높게 나타났다.

다섯째, 피해자의 태도에 따른 공식적 대처방안을 보면 고소 가능한 요인, 개인적 대처방안에서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가 나타났다. 피해 당시 저항한 경우 고소 가능한 요인이 증거확보와 피해자 본인의 의지가 높게 나타났다. 개인적 대처방안에서는 저항한

경우 도움요청이 높게 나타났고, 저항하지 못한 경우에는 피해 사실을 숨기려고 했다.

여섯째, 피해 빈도에 따른 성폭력 피해 대처방안을 보면 고소 가능한 요인, 상담과정에서 취해진 조치, 개인적 대처방안에서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가 나타났다. 개인적 대처방안을 보면 1회인 경우 도움요청이 64.5%로 높게 나타났고, 2회 이상인 경우에는 피해 사실을 숨김이 68.5%로 높게 나타났다.

일곱째, 피해 지속 요인에 따른 성폭력 피해 대처방안을 보면 의료적 조치, 상담과정에서 취해진 조치, 개인적 대처방안에서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가 나타났다. 성폭력 피해가 2회 이상 지속되는 요인에 따른 공식적 대처방안을 보면 가해자 측 요인, 보호자 측 요인에 따른 고소 가능한 요인을 보면 증거확보가 가장 높게 나타났고, 고소를 하지 않은 이유에서는 심리 사회적 요인이 높게 나타났다. 의료적 법적 조치를 한 경우가 높게 나타났고, 상담과정에서 취해진 조치에서는 의료적 법적 조치가 더 높게 나타났다. 비공식적 대처방안에서 개인적 대처방안을 보면 피해사실을 숨김이 가장 높게 나타났다.

여덟째, 성폭력 피해 사실이 드러난 동기에 따른 대처방안을 보면 고소 가능한 요인, 고소를 하지 않은 이유, 의료적 조치, 상담과정에서 취해진 조치, 개인적 대처방안, 부모의 대처방안에서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가 나타났다. 피해자가 도움을 요청한 경우에는 고소하는데 피해자 본인의 의지가 60.7%로 나타났고, 피해 사실이 발견된 경우에는 증거확보가 69.9%로 더 높게 나타났다.